

콘서트 열리고 차 마시고 책 읽고... 여기는 미술관입니다

지금은 문화관광시대 **新** 미술여지도

예향의 소문난 미술관 ① 담양군

올로(Yolo),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벨(Work + Life Balance).... 근래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트렌드 키워드이다. 특히 삶과 일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 시대에 여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워라벨시대의 여행은 과거와 다르다. 짧은 기간내 유명 관광지를 '찍는' 관광 보다는 도시의 미적감각을 즐기는 아트투어가 각광받는다. 근래 문화관광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예향의 소문난 미술관들을 둘러 본다.



대담아트센터.



공예전문미술관 '보임셴'.



남촌미술관.



담빛예술창고의 파이프오르간 공연 모습.



1960~70년대 지어진 옛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한 담빛예술창고 전경. 건물 왼쪽에 자리한 미디어아티스트 정운학의 작품 '빛의 열매' (2015년 작)가 눈길을 끈다.

지난달 초, 담빛예술창고의 문예카페에 들어서자 10여 개의 테이블은 이미 만석이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일부 방문객들은 카페의 한켠에 서서 빈자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테이블을 떠나는 사람은커녕 시간이 지날 수록 방문객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20분쯤 지났을까? 카페의 맨 앞쪽에 설치된 대나무 파이프오르간에서 낮고 목탁한 음악소리가 흘러 나왔다.

파이프 오르간 앞에 앉은 피아니스트는 30분 동안 귀에 익숙한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시작으로 슈베르트의 '군대행진곡', 파헬벨의 '개는뽀주곡'과 팝송 'A Love until the end of the time' 등을 연주했다. 공연이 끝나자 그제서야 일부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다른 이들은 빈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후의 여유를 즐겼다.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4시30분~5시), 화요일~목요일(오후 2시~2시30분) 담빛예술창고에 가면 만날 수 있는 파이프오르간 콘서트다.

근래 '대나무의 고장' 담양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문화 명소는 다름 아닌 미술관이다. 죽녹원, 관방제림, 소쇄원, 면양정, 송강정, 메타세콰이어, 대나무 박물관 등 담양의 역사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전통적인 관광지 못지 않게 자연과 예술을 접목한 미술관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옛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한 담빛예술창고, 힐링 미술관으로 자리잡은 대담아트센터, 갤러리와 카페, 레스토랑을 묶은 남촌미술관, 공예전문 보임셴 미술관 등이 대표적이다.

#담빛예술창고

지난 2015년 가을 개관한 담빛예술창고는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1960~70년대 지어진 옛 창고의 높은 층고와 그대로 살린 미술관은 인근의 관방제림과 어우러진 고풍스런 분위기가 멋스럽다. 미술관 앞에 서면 파란지붕과 붉은 벽돌건물에 한자로 새겨진 '남송창고' (南松倉庫) 글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온다. 자칫 추억속으로 사라질 뻔 했던 공간이 예술의 옷으로 갈아입은 탓인지 숨겨놓은 보석을 발견한 듯 설렌다.

미술관은 330㎡(약 100평) 규모의 창고 2동이 이웃해 있는 1차 형태다. 왼쪽 건물은 전시장, 오른쪽 건물은 카페로 리모델링해 공간의 특성을 강조했다. 전시장안으로

양곡창고 리모델링 담빛예술창고
파이프오르간 콘서트 전국서 발길
'힐링 미술관' 대담아트센터
'감나무집' 미술관 길 예술이 가득
'숲 속 등지' 공예 전문 보임셴 미술관
작가 위한 창작소·숙식공간 갖춰
카페·레스토랑 품은 남촌미술관
컨테이너 별관 전시관도 눈길

들어서면 '남도르네상스 인터랙티브 콘텐츠-사우의 정원 소쇄원을 거닐다' (1월28~3월31일)전이 방문객을 맞는다. 전남정보산업진흥원이 기획한 이 전시는 호남의 대표적 별채정원인 소쇄원의 사계절 풍광과 소쇄원의 아름다운 노래한 하서 김인후 선생의 '소쇄원 48경(瀟瀟園四八詠)'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높은 층고와 파이프오르간이 인상적인 카페가 기다린다. 건물 외관은 옛 모습 그대로 재현했지만 카페 내부는 모던한 감각으로 꾸며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1층 가운데 꾸민 서기는 차를 마시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한다. 담양군 담양읍 관방제림 객사7길 75, 개관시간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설날 당일 휴관. 문의 061-383-8241.

#대담아트센터

죽녹원과 관방제림 사이에 자리한 대담미술관은 지난 2010년 정희남(서양화가) 광주교대 교수가 사재를 털어 개관한 곳이다. 건물 자체가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미술관은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까 내뿜은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들의 문화나들이로 인기가 높다. 미술관 뒤편 정원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감나무 집'도 미술관의 색다른 볼거리다. 옛 집을 허물지 않고 예술작품과 작은 소품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 고풍스런 멋과 고즈넉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술관 주변을 걷다 보

면 지역 작가, 향교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제작한 예술작품들을 즐길 수 있다. 담양군 담양읍 언골길 5-4. 연중무휴. 개관시간 오전 9시~밤 11시. 문의 061-381-0082.

#공예미술관 보임셴

광주와 담양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는 보임셴은 공예전문미술관을 내걸고 지난 2015년 4월 문을 열었다. 독일어로 '작은 나무에서 큰 나무로' 라는 뜻을 지닌 보임셴은 광주대 인터미디어디자인학과 정건용 교수와 목공예를 전공한 부인 김현정 관장이 직접 터를 파는 등 손수 땀을 흘려 가꾼 공간이다.

정 교수가 보임셴을 열게 된 공예작가들을 위한 발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른 장르에 비해 공예작가들을 만나는 미술관이야 갤러리가 많지 않다 보니 공예의 매력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미술관 앞으로는 작은 감나무를 중심으로 나무데크를 만들고, 그 주변에는 작은 꽃과 나무를 심어 '숲속 미술관'을 탄생시켰다. 미술관 옆에 자리한 '공예창작소'는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스 입주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전시, 창작, 숙식시설을 갖추고 있다. 담양군 대전면 신흥길 79-3. 매주 월요일 휴관. 개관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의 061-383-6473

#남촌미술관

죽향대로 길목에 자리한 남촌미술관은 지난해 4월 이성태씨가 카페와 전시공간을 겸한 공간으로 오픈했다. 30년 동안 회사원으로 일한 그는 주말이면 화구통을 메고 자주 찾았던 담양 남촌마을에 터를 잡고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미술관을 품에 안았다. 건물은 구급에서 3D설계업을 다룬받아 직접 스케치하고 디자인해 시공했다. 본관 건물 1층은 그림이 걸린 갤러리 카페로 100여 짜리 대형 그림 등 다양한 작품이 걸려 있으며 공예가가 만든 가족제품도 판매한다. 카페 2층은 온전한 전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푸른색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2층 규모의 미술관 별관이 눈길을 끈다. 동근 유리창 밖으로 내려 보이는 바깥 풍경은 남촌미술관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1290. 매달 둘째~넷째주 화요일 휴관 개관 시간 오전 10시~밤 10시. 문의 061-381-4320.

/담양·박진현 문화선민기자 jhpark@kwangju.co.kr



년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외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연회비

구분	연회비(VAT포함)	비고
개인(1년)	₩ 2,800,000	본인 1인
증정품		• 객실 무료이용권 2매 • 레스토랑 이용권 1매 • 휘트니스 이용권 4매

